IFRS 조기적용기업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IFRS Transition on Audit Fee and Hour; Evidence from early IFRS Adopters

이은신*, 정영기**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의 상장기업들은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라 함)을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서(이하 “K-GAAP”으로 함)는 ‘규정’ 중심이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으로 함)은 ‘원칙’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이것은 기업이 스스로 큰 원칙 안에서 특정 회계처리에 대한 이유와 논리를 만들어 내야하고 회계처리의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은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업무에 더 많은 전문가적 판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무정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인들의 감사업무가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특히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가 되면서 연결범위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업무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상품 및 금융

*) 홍익대학교 대학원
**) 홍익대학교 교수

부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확정급여채무 등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감사인이 검토할 항목이 증가됨에 따라 K-GAAP하에서 작성된 재무제표 감사업무에 비하여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 본문에 생략된 정보를 주석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주석에 대한 검토·분석이 중요해지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감사인의 업무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은 감사인에게 있어서 감사업무 전반에 위험을 증가시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즉, 회계기준이 변경되어 최초 작성되는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감사인에게 더욱 신중한 감사를 요구하는 일이 된다. 이러한 감사인의 감사노력 증대는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FRS를 처음 적용하는 기업들이 감사인에게 지급하는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 그리고 감사투입시간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IFRS를 도입한 해외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IFRS로의 전환으로 인해 기업들이 지출하게 될 감사보수는 확실하게 증가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IFRS를 적용하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의 전산처리 시스템 구축과 회계처리를 위한 자문비용으로서 비감사보수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주석공시의 내용과 분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사인의 업무범위와 투입해야 할 자원이 증가한 결과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증가됨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제 2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설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제 3 장은 연구설계로서 연구가설과 가설검증을 위한 모형 및 변수의 측정과 표본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다음, 제 4 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제 5 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대한 선행연구

감사보수와 관련된 연구로서 Simunic(1980)과 Francis & Simon(1987)은 감사인에게 더 많은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수취채권과 재고자산으로 인해 기업가치 결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자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복잡성은 더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감사인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Simunic(1980)의 연구에서는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으로 피감사기업의 총자산규모, 종속회사 수, 총자산 대비 해외자산 규모,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비중, 당기손실발생여부 및 감사의견 등이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Simunic(1980)의 연구 이후에 감사보수 결정요인을 연구한 많은 연구들에서 영업의 복잡성, 감사위험, 피감사회사의 재무성과, 해외자산 규모,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비중, 감사의견, 감사기간, 감사인 유형, 산업특성 등의 추가적인 결정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Francis(1984), Francis and Stokes(1986), Palmrose(1986), Francis and Simon(1987), Palmrose(1986))

주인기와 최관(1997)의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회계법인들의 실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자산규모, 해외매출액의 비율, 상장 여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수근과 박종일(2010)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및 비상장기업 모두에 대해 감사보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장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로는 기업규모, Big4 감사인여부, 초도감사여부, 감사인지정여부, 영문재무제표 작성여부, 내부회계검토 대상여부,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전기보다 주식 및 사채발행액의 증가여부, 매출액 성장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Big4 감사인에 대한 프리미엄 또한 시장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됨을 관찰하였다.

권수영과 김문철(2001)은 감사계약서에 기초한 감사보수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연구된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감사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뒷받침 되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보수의 자율화로 인해 오히려 감사인 간의 과다경쟁을 초래하여 감사보수의 할인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감사시간과 관련된 연구로 Palmrose(1986)는 감사보수모형에서 감사보수 대신 감사시간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Big8 회계법인들이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Big8의 감사보수가 높은 것은 이들 법인의 독점력보다는 차별화된 감사품질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O′Keefe 등(1994)은 감사시간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직급별로 감사시간이 피감사회사의 기업규모 및 영업의 복잡성, 감사위험에 따라 결정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감사보수가 감사시장에서의 경쟁구조와 이에 따른 가격정책이 연속감사에 따른 학습효과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사보수보다는 감사시간을 보다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감사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의 연구로 최관과 주인기(1998)는 감사인이 실제로 투입하고 있는 감사시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들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시간당 감사보수의 수준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피감사회사를 여러 특성별로 나누어 시간당 감사보수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규모별 분석에서는 자

산규모 3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의 시간당 감사보수가 대기업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산업별 분석에서는 임대업과 서비스업의 시간당 감사보수가 제조업, 도소매업 및 건설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장기업과 초도감사기업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전체 평균보다 오히려 상당히 낮게 나타나 감사보수체계가 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의 IFRS 조기적용기업에서도 관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2. IFRS 도입과 관련된 선행연구

IFRS 도입과 관련된 선행연구 가운데 Jermakowicz et al.(2007)은 IFRS나 U.S. GAAP이 기존의 독일 회계기준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IFRS 또는 U.S. GAAP의 적용으로 주석사항의 페이지수가 대략 50%정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Schadewitz & Vieru(2010)는 FAS(Finnish Accounting Standards)와 IFRS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IFRS를 적용한 핀란드기업을 대상으로 최초 적용기간 동안 감사보수가 IFRS 적용에 따른 재무제표의 변동수준과 관련이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IFRS 적용에 따른 변동수준과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를 더한 총보수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IFRS 적용에 따른 변동수준이 클수록 감사인에게 더 많은 비감사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 비감사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도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로 강선민 등(2009)은 우리나라 보다 먼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영국기업과 호주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IFRS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IFRS의 도입으로 자산, 부채, 자본 및 이익수치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으며, 특히 변동한 정도에 있어 기업들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영국과 호주 기업들의 IFRS 도입으로 인한 자산, 부채, 자본 및 이익에 대한 인식기준의 변화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과 호주 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IFRS 도입 기업들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일 수도 있으나 IFRS는 회계정책의 선택에 있어 다양한 대안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임석식 등(2009)은 K-IFRS 도입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무적인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기업, 감사인,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감사인들은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 및 감사위험의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평균 30%이상의 투입시간 및 감사보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IFRS의 적용으로 감사업무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감사시간이 증가하였는지, 또는 IFRS 자문용역과 관련한 비감사서비스의 증대로 감사보수가 할인되는 현상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III. 연구설계

1. 연구가설

K-IFRS 도입은 감사인에게 있어서 규제 및 공시환경에 대한 중요한 변화로 인식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가 클수록 감사인에게는 더 큰 변화로 인식될 것이다. 특히 K-GAAP과 비교하여 K-IFRS 하에서는 종속회사의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과 검토에 기울여야 하는 노력도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공정가치 회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재무제표 항목이 증가하였고 금융상품에 대한 분류기준의 변경도 감사인의 노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K-GAAP과는 달리 K-IFRS에서는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 상각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기업에게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자산 및 비용항목의 금액을 변동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회계기준의 국제적인 환경변화는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K-IFRS가 실무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다는 점과 이로 인한 감사노력의 투입 증대와 감사인의 위험 증가는 충분히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K-IFRS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 복잡성을 K-GAAP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그 차이로 측정한 변동수준(ADJ)과 주석공시사항의 분량(NOTE)으로 측정하고, 이러한 복잡성의 증가에 따라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감사시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감사시간 결정요인이 감사보수 결정요인과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O′keefe 등; 1994),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K-IFRS 도입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무적인 문제점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임석식 등(2009)의 연구에서는 평균 30%이상의 투입시간 및 감사보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론을 근거로 K-IFRS의 적용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1: K-IFRS 적용의 복잡성과 감사보수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가설2 : K-IFRS 적용의 복잡성과 감사시간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한편 K-IFRS를 도입한 기업이나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K-IFRS 적용과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 자문업무' 또는 '국제회계기준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비감사업무 용역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세무조정이나 자산관리컨설팅 업무 외에 K-IFRS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비감사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만큼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감사인의 추가업무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K-IFRS와 K-GAAP과의 차이가 클수록 K-IFRS 도입을 위한 감사인의 조언 및 자문업무 확대에 따라 비감사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Palmrose(1986)와 Sharma and Sidhu(2001)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IFRS를 도입함에 따라 감사인에게 감사업무 외에도 비감사업무를 동시에 요구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회계감사 시스템을 실행함으로써 감사인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Solomon(1990)과 Jermacowitz and Gornik-Tomaszewski(2007)는 IFRS 전문가의 수가 적음에 따라 나타나는 일종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업이 감사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려는 보수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총보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FRS 적용이 비감사보수를 포함한 총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 K-IFRS 적용의 복잡성과 총보수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2. 연구모형

1) 감사보수 모형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연도에는 비교목적으로 공시하는 직전연도의 재무제표도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교표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직전연도 당시에는 이미 K-GAAP에 준거하여 재무제표를 공시한 바 있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년도에 대해서는 K-IFRS에 의한 재무제표와 K-GAAP에 의한 재무제표를 동시에 입수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회계연도(전환일, 즉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기 시작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대해 K-IFRS의 적용에 따른 복잡성 정도를 기업의 재무제표 항목이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Schadewitz & Vieru(2010)이 제시한 변동수준으로 측정하고,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감사인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원칙'을 중요시하는 K-IFRS가 '규정'을 중요시하는 K-GAAP보다 더 전문가적 판단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에 투입하는 노력이 증가함으로써 감사보수, 감사시간이 증가할 것인지 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감사보수의 결정요인들을 통제하고 연구의 초점이 되는 K-IFRS 적용에 따른 복잡성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가설을 검증한다. 연구모형의 통제변수들은 권수영 등(2004)의 논문에 기초하여 선택하였으며, IFRS 의적용에 따른 복잡성은 Schadewitz & Vieru(2010)에서 사용한 복잡성지수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2].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감사보수에 대한 회귀식은 (모형 1-1),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감사시간에 대한 회귀식은 (모형 1-2),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식은 (모형 1-3)과 같다.

(모형 1-1)

$$\ln(AF) = a_0 + a_1 ADJ + a_2 NOTE + a_3 \ln(SIZE) + a_4 SQ(SUBS) + a_5 LOSS + a_6 MB + z$$

(모형 1-2)

$$\ln(TIME) = b_0 + b_1 ADJ + b_2 NOTE + b_3 \ln(SIZE) + b_4 SQ(SUBS) + b_5 LOSS + b_6 MB + z$$

(모형 1-3)

$$\ln(TAF) = c_0 + c_1 ADJ + c_2 NOTE + c_3 \ln(SIZE) + c_4 SQ(SUBS) + c_5 LOSS + c_6 MB + z$$

변수들에 대한 정의

$\ln(AF)$: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ln(TIME)$: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ln(TAF)$: 총보수의 자연로그

ADJ : K-GAAP과 K-IFRS 간의 회계기준의 복잡성과 조정수준을 측정하는 변수

$NOTE$: 주석페이지수의 루트

$\ln(SIZE)$: 총자산의 자연로그

$SQ(SUBS)$: 자회사 수의 루트

$LOSS$: ROE가 (-)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MB : 자본의 시장가치/자본의 장부가치, 또는 주가/액면가

만약 회귀분석의 결과가 가설 1과 일치한다면, (모형 1)에서 a_1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감사시간에 대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모형 2)는 종속변수만을 감사시간의 로그값으로 바꾸고 나머지 변수는 동일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사시간은 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것으로, 감사시간은 감

2) 각각의 모형들에서 감사보수, 감사시간, 총보수 및 총자산에 대해 자연로그를 취한 이유는 독립변수 사이의 선형성과 이분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최관, 백원선; 1998).

사보수에 비례하는 변수로 종종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K-IFRS로 회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종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주석공시사항의 증가로 인하여 검토대상이 되는 주석의 분량이 감사투입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복잡성과 변동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사시간도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과 분석결과가 일치한다면, b_1과 b_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이어 추가로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를 더한 총감사보수에 대해 K-IFRS 적용에 따른 변동수준과 복잡성과 관련이 있다면, (모형 3)의 회귀계수 c_1과 c_2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2) 변수 측정

동일한 기업에 대해 동일한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K-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항목의 금액과 K-IFRS를 적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항목의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날수록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감사인들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며, 감사에 투입할 자원을 증가증가시킬 것이라는 Schadewitz & Vieru(2010)의 논거에 따라 IFRS 적용에 따른 변동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Blanco and Osma (2004)와 Street et al. (2000), Adams et al. (1999) 등이 제시한 비교가능성 지수(CI : Index of Comparability)를 이용하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복잡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변동수준은 총자산을 구성하는 항목을 매출채권(REC)과 재고자산(INV), 기타유동자산(OCA) 및 비유동자산(NCA)의 4가지 항목으로 세분하였으며, 총부채를 구성하는 항목은 유동부채(CD)와 비유동부채(NCD)로 나누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EBIT)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EBIT)효과를 차감한 당기순이익(NI)[3]항목에 대해 K-IFRS를 조기에 도입하여 적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K-GAAP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K-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금액의 절대값 차이를 구하고 이를 K-GAAP하에서의 금액으로 나눠 각 항목들의 증분비율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REC_{ad} = \frac{|REC_{K-IFRS} - REC_{K-GAAP}|}{REC_{K-GAAP}} \quad (1)$$

$$INV_{ad} = \frac{|INV_{K-IFRS} - INV_{K-GAAP}|}{INV_{K-GAAP}} \quad (2)$$

3) 당기순이익(NI)에 대하여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EBIT)과 IFRS의 변동효과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EBIT)의 차이값을 차감하여 순수한 당기순이익(NI)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OCA_{ad} = \frac{|OCA_{K-IFRS} - OCA_{K-IFRS}|}{OCA_{K-GAAP}} \quad (3)$$

$$NCA_{ad} = \frac{|NCA_{K-IFRS} - NCA_{K-GAAP}|}{NCA_{K-GAAP}} \quad (4)$$

$$CD_{ad} = \frac{|CD_{K-IFRS} - CD_{K-GAAP}|}{CD_{K-GAAP}} \quad (5)$$

$$NCD_{ad} = \frac{|NCD_{K-IFRS} - NCD_{K-GAAP}|}{NCD_{K-GAAP}} \quad (6)$$

$$EBIT_{ad} = \frac{|EBIT_{K-IFRS} - EBIT_{K-GAAP}|}{EBIT_{K-GAAP}} \quad (7)$$

$$NI_{ad} = \frac{|EBIT-NI_{K-IFRS} - EBIT-NI_{K-GAAP}|}{EBIT-NI_{K-GAAP}} \quad (8)$$

각 항목들의 양의 차이값은 전체적으로 K-IFRS 적용으로 각 항목들의 금액이 증가되었음을 뜻하고, 음의 차이값은 K-IFRS 적용으로 인해 각 항목의 금액이 감소하였음을 뜻한다. 이렇게 조정수준은 양의 조정도 있을 것이며 음의 조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동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절대값을 취하였다.

한편 복잡성지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58개 IFRS 조기 적용기업에 대해 측정한 변동수준 측정치에 대해 5분위수를 구하여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한 후, 이 점수들을 모두 더해 40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비교가능성지수(CI : Comparability Index)를 산출(ADJ)하여 측정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복잡성 수준의 측정치가 크면 클수록 K-IFRS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한 감사업무가 증대되어 결과적으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1의 복잡성지수:

$$ADJ = \frac{CI(REC) + CI(INV) + CI(OCA) + CI(NCA) + CI(CD) + CI(NCD) + CI(EBIT) + CI(NI)}{40}$$

한편 Jermakowicz 등(2007)의 연구에서는 독일회계기준과 IFRS를 비교했을 때 연차

보고서 상의 주석공시사항의 페이지 수는 IFRS 적용에 따라 거의 5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IFRS의 복잡한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FRS의 복잡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변수로서, 주석공시사항의 페이지 수의 루트값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변수 측정은 다음과 같다.

$NOTE = \sqrt{NOTE_{K-IFRS}}$

3)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코스닥시장 등록기업과 유가증권시장 등록기업들 중에서 2010년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대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를 통해 입수한 연차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직접 수집하였으며, 기타 변수들에 대한 자료는 FN Guide를 이용하였다. 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일을 전후로 한 재무제표 항목에 대한 데이터는 K-IFRS가 처음 적용되는 재무보고서에 대해 K-GAAP와 K-IFRS 간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교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으므로 표본기업들의 공시된 비교재무제표를 직접 입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58개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 기업으로서 실증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표 1> 연구대상 기업

패널 A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조기 도입기업

유가증권(KOSPI) 시장		코스닥(KOSDAQ) 시장	
2009년 도입 기업(7개)		2009년 도입 기업(6개)	
KT&G	페이퍼코리아	디스플레이텍	에코에너지홀딩스
STX팬오션	영진약품공업	인선이엔티	루티즈
풀무원홀딩스	이건산업	한국큐빅	
코스모화학		다스텍	
2010년 도입 기업(25개)		2010년 도입 기업(20개)	
삼성전자	GIIR	유진기업	나우콤
삼성SDI	STX조선해양	넥스콘테크	에스코넥
삼성전기	STX엔진	우주일렉트로	KCI
삼성테크윈	화승알앤에이	엔터기술	동일철강
LG	한신정	듀오백코리아	에쎈테크
LG전자	세하	빛과전자	BT&I
LG디스플레이	한국프랜지공업	중앙백신	CU전자
LG화학	한솔홈데코	이라이콤	

LG유플러스	신일산업	나이스정보통신한
LG이노텍	대한해운	신평정보
LG생활건강	백광산업	우원개발
LG생명과학	에이엔피	한국전자금융
LG하우시스		프롬써어티
총 32개		총 26개
총 58개		

* 출처: 알기쉬운 국제회계기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2010년 12월)

패널 B : 산업별 표본 구성

업종코드		업종명	도입기업
C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1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
	24	1차 금속 제조업	1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
	28	전기장비 제조업	2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32	가구 제조업	1
D	35	정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1
H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 운송업	2
	51	항공 운송업	-
J	58	출판업	2
	61	통신업	2
	63	정보서비스업	1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
	71	전문서비스업	2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2
			58

* 가구를 제외한 종이·목재·펄프 산업은 묶어서 분류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량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에는 이미 K-GAAP에 준거하여 재무제표를 공시한 바 있고,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연도는 비교표시를 위하여 직전연도의 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므로,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년도에 대해서는 K-IFRS에 의한 재무제표와 K-GAAP에 의한 재무제표를 동시에 입수할 수 있다. 이같이 <표 2>는 동일한 회계연도에 대해 K-GAAP과 IFRS를 적용하였을 때 총자산과 총부채 및 총자본의 변동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패널 B는 IFRS 적용 직전연도와 IFRS가 최초 적용된 기간의 감사보수, 총보수 및 감사시간을 비교한 표이다.

먼저, K-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총자산과 총부채 및 총자본과 K-IFRS에 따라 작성된 비교재무제표상의 총자산과 총부채 및 총자본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2> 기술통계량[K-GAAP(t기*)→K-IFRS(t기*)] (단위:백만원)

	자산		부채		자본	
	K-GAAP	K-IFRS	K-GAAP	K-IFRS	K-GAAP	K-IFRS
평 균	3,326,839	3,434,074	1,170,367	1,271,305	2,156,472	2,162,769
표준편차	11,785,329	12,256,533	3,167,452	3,564,072	8,931,788	8,927,016
최 소 값	18,982	19,408	1,880	2,048	9,081	9,447
중 앙 값	180,846	205,279	75,588	84,642	93,317	88,901
최 대 값	8,602,415	89,609,354	19,199,443	22,854,888	66,824,711	66,754,466
증 감 율	1.95%		4.88%		0.7%	
최대증가율	44.33%		37.52%		58.57%	
최대감소율	-39.03%		-18.84%		-45.60%	

(t기*는 K-IFRS를 도입하여 적용하기 시작한 최초 연도)

총자산 금액은 평균 1.9% 증가하였으며 최대 증가율은 44.3%, 최대감소율은 39%로 기업마다 증가와 감소폭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총부채 금액은 평균 4.9% 증가하였으며 최대 증가율은 37.5%, 최대감소율은 18.8%로, 자산의 증감율보다는 변동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자본은 평균 0.7% 증가하여 평균적으로는 가장 적게 변동하였으나 최대증가율은 58.6%, 최대감소율은 45.6%로, 개별 기업별로는 가장 많은 변동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강선민 등(2009)의 연구에서 영국과 호주기업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영국의 경우 자산은 8.4%, 부채는 11.3%, 자본은 7.6% 증가하였으며, 호주의 경우 자산은 2.9%, 부채는 19.8% 증가하고 자본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볼 때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제표 항목의 변동폭은 유럽 국가들보다 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음 <표 3>의 패널 A는 감사보수, 총보수 및 감사시간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 따르면 감사보수와 총보수가 불변 및 감소된 기업이 각각 33개와 32개로 증가된 기업보다 많지만, 감사시간은 37개 기업에서 증가를 보고하고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감사보수의 평균 증감율에서는 감소한 기업들은 4%미만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증가한 기업들은 평균 26%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감소폭보다는 증가폭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총보수 면에서는 감소와 증가의 폭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감사시간은 증가폭이 감소폭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패널 B는 증감율을 더욱 세분화한 것으로 감사보수 증가를 보고한 기업 중 12개 기업이 10~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총보수 역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감사시간이 증가된 기업중에서 18개 기업이 5% 미만의 미미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기술통계량 - 감사보수, 총보수, 감사시간(t-1기→t기)**
패널 A

	감소 및 불변		증가		57개 조기 적용기업의 평균증감율	총계
	기업수	평균 감소율	기업수	평균 증가율		
감사보수	33	-3.91%	24	+67.91%	+26.33%	57
총보수	32	-19.30%	25	+84.28%	+26.13%	57
감사시간	20	-8.10%	37	+21.18%	+10.91%	57

* LG하우시스는 2010년 LG화학으로부터 분리된 기업으로서 2009년 재무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

** t-1기는 K-IFRS 도입 직전연도, t기는 K-IFRS를 도입하여 적용한 첫 회계연도

패널 B

	불변/감소 기업	5% 미만 증가 기업	5%~10% 증가 기업	10%~50% 증가 기업	50% 이상 증가 기업	증가기업 (소계)	합계
감사보수	33	2	6	12	4	24	57
총보수	32	2	1	12	10	25	57
감사시간	20	18	5	10	4	37	57

<표 4>는 주석공시사항의 페이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이다. 주석공시사항의 페이지수가 감소한 기업은 전체 57개 기업 중에서 3개 기업에 불과했으며, 55개 기업은 모두 주석공시사항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0~50%증가를 보고한 기업이 29개로 가장 많았으며 100%이상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기업도 6개에 달해 많은 기업들이 K-IFRS의 적용으로 인하여 주석공시사항을 종전보다 두 배 가량 더 많이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기술통계량 - 주석 페이지수(t-1기→t기)*

	불변/감소 기업	10%~50% 증가 기업	50%~100% 증가 기업	100% 이상 증가 기업	증가기업 (소계)	합계
주석 페이지수	3	29	20	6	55	58

*t-1기는 K-IFRS를 도입하기 직전인 K-GAAP을 적용한 회계연도이며, t기는 K-IFRS를 도입하여 적용하기 시작한 첫 회계연도

다음으로 <표 5>에서 표본기업의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ln(AF)의 평균은 4.77로 58개 기업의 평균 감사보수는 118백만원 정도이다. ln(TIME)의 평균은 7.19이며, ln(TAF)의 평균은 5.04로 감사보수의 평균보다 약간 높은 나타났다. ln(SIZE)의 평균은 12.75로 표본기업의 총자산 평균은 3,000억원 정도이며 주석의 평균 페이지수는 약 73페이지 정도에 이르며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수의 평균은 2.26개이다. LOSS 더미변수의 평균은 0.29로 손실을 보고한 기업보다는 이익을 보고한 기업이 더 많았으며, 액면가 대비 주가의 평균은 13.76, 중앙값은 7.68이다.

<표 5>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ln(AF)	4.77	1.04	3.14	4.50	8.06
ln(TIME)	7.19	1.11	5.24	6.90	10.61
ln(TAF)	5.04	1.20	3.14	4.83	8.97
ADJ	0.57	0.14	0.25	0.58	0.88
SQ(NOTE)	8.56	1.11	6.08	8.57	10.25
lnSIZE	12.75	2.04	9.87	12.23	18.31
SQ(SUBS)	2.26	2.27	0	1.73	11.87
LOSS	0.29	0.46	0	0	1
MB	13.76	22.52	0.32	7.68	157.6
표본기업 수	58개				

$\ln(AU)$: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ln(TAU)$: 총보수의 자연로그
$\ln(TIME)$: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ADJ : 오분위수로 측정한 복잡성 지수
SQ($NOTE$) : 주석 페이지 수의 루트
$\ln(SIZE)$: 총자산의 자연로그
$SQ(SUBS)$: 자회사 수의 루트
$LOSS$: ROE가 (-)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MB : 자본의 시장가치/자본의 장부가치, 또는 주가/액면가

2. 상관관계분석

<표 6>은 IFRS를 조기도입한 전체기업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비감사보수에 대한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피어슨 상관계수이다. 이를 살펴보면 첫 번째 종속변수인 자연로그를 취한 감사보수는 주석 페이지 수의 루트값과 양(+)의 방향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감사시간 모형에서도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과, 총보수에서도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감사보수와 K-IFRS 적용에 따른 복잡성 정도를 나타내는 ADJ는 각각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로그를 취한 총자산 변수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있어서 모두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사업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종속회사 수(SQ(SUBS))변수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관계도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업이 복잡할수록 감사인의 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감사보수 증가를 예상한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기업규모와 사업의 복잡성 간의 상관관계도 1% 수준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LOSS 더미변수는 각각의 종속변수와 1% 또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주가를 액면가로 나눈 기업의 시장가치(MB)는 세 가지 종속변수와 모두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가치가 높을수록 감사인에게 지급하는 감사보수와 총보수가 증가하고 감사시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는 사업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SQ(SUBS)와 기업규모 변수인 ln(SIZE) 변수와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LOSS와는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LOSS는 ROE가 음(-)인 경우에 1의 값을 취하므로 반대부호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표 6>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4)]

변수		ADJ	SQ(NOTE)	ln(SIZE)	SQ(SUBS)	LOSS	MB
종속변수	lnAF	0.246 **	0.479 ***	0.916 ***	0.807 ***	-0.213 **	0.525 ***
	lnTIME	0.250 **	0.491 ***	0.901 ***	0.761 ***	-0.214 **	0.457 ***
	lnTAF	0.251 **	0.500 ***	0.888 ***	0.728 ***	-0.196 *	0.417 ***
독립변수	ADJ		0.283 ***	0.311 ***	0.316 ***	-0.235 **	0.089
	SQ(NOTE)			0.456 ***	0.361 ***	-0.020	0.172 *
	ln(SIZE)				0.770 ***	-0.199 **	0.465 ***
	SQ(SUBS)					-0.222 **	0.599 ***
	LOSS						-0.237 **

*, **, *** : 양측검정시 각각 10%, 5%, 1%수준에서 유의

3. 실증분석 결과

가설 1은 IFRS의 적용에 따른 복잡성을 재무제표의 변동폭에 따른 비교가능성지수로 측정하고, 복잡성이 증대될수록 감사보수가 증가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실증분석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K-IFRS의 적용에 따른 복잡성 정도(ADJ)와 감사보수

(모형 1-1) $\ln(AF) = a_0 + a_1 ADJ + a_2 SQ(NOTE) + a_3 \ln(SIZE) + a_4 SQ(SUBS) + a_5 LOSS + a_6 MB + z$

4)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테스트 결과,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의 모든 변수들의 VIF 최대값은 3.105로 10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예측부호	회귀계수	t값	유의수준
ADJ	+	-0.079	-1.445	
SQ(NOTE)	+	0.094	1.658	*
ln(SIZE)	+	0.692	8.512	***
SQ(SUBS)	+	0.230	2.664	***
LOSS	+	-0.024	-0.452	
MB	+	0.052	0.824	
수정 R^2		0.863		
F값		60.803		

*** : 양측검정시 1%수준에서 유의

(모형 1-1)은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종속변수인 ln(AF)는 K-IFRS를 도입한 연도의 감사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 모형의 주요 변수는 K-IFRS 도입에 따른 조정수준, 즉 복잡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ADJ와 SQ(NOTE) 변수이다. 임석식 등(2009)이 감사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결과에서 감사인들은 K-IFRS 도입 후 평균 30% 정도의 감사보수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Schadewits and Vieru(2010)의 선행연구에서는 IFRS 조정수준이 총보수와 양(+)의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분위수로 측정한 ADJ를 이용한 분석결과에서는 감사보수와 K-IFRS 조정수준간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K-IFRS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감사인에게 보수를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감사인 또한 K-IFRS와 관련된 업무 증가분을 즉각 감사보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ln(SIZE)와 SQ(SUBS)는 감사보수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져 총자산과 종속회사 수로 측정한 사업의 복잡성이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Simunic 1980; Francis 1984; Palmrose 1986).

본 연구의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 종속변수에 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을 취하고, (모형 1)과 동일한 변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가설 2가 지지되기 위해서는 IFRS 적용에 따른 복잡성을 측정한 ADJ과 SQ(NOTE) 변수가 감사시간과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실증분석 결과, 아래의 <표 8>과 같이 ADJ는 감사시간과 음(-)의 관계를 가지만 유의하지 않았고, IFRS 복잡성을 나타내는 SQ(SUBS)는 양(+)의 방향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K-IFRS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인이 검토해야 할 주석 공시항목과 주석 기재내용의 증가로 재무제표 감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본 연구의 가설 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 외 ln(SIZE)와 SQ(SUBS)는 가설 1의 실증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감사시간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8> K-IFRS의 적용에 따른 복잡성 정도(ADJ)와 감사시간

(모형 1-2) $\ln(TIME) = b_0 + b_1 ADJ + b_2 SQ(NOTE) + b_3 \ln(SIZE) + b_4 SQ(SUBS) + b_5 LOSS + b_6 MB + z$

변수	예측부호	회귀계수	t값	유의수준
ADJ	+	-0.071	-1.119	
SQ(NOTE)	+	0.113	1.726	*
ln(SIZE)	+	0.732	7.756	***
SQ(SUBS)	+	0.180	1.801	*
LOSS	+	-0.019	-0.307	
MB	+	-0.008	-0.116	
수정 R^2		0.815		
F값		42.892		

, * : 양측검정시 각각 5%, 1%수준에서 유의

마지막으로 <표 9>는 본 연구의 가설 3의 검증결과로,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를 합한 총보수 금액의 자연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K-IFRS 도입에 따른 복잡성의 증가와 주석의 공시분량이 많아질수록 총보수금액이 증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가설 1과 가설 2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가설 3의 결과에서도 기업규모 변수인 ln(SIZE)가 가설 1과 가설 2와 동일하게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ADJ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K-IFRS 조정수준이 총보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IFRS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SQ(SUBS)변수와는 1% 수준에의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 K-IFRS 복잡성으로 인해 총보수는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9> K-IFRS의 적용에 따른 복잡성 정도(ADJ)와 총보수

(모형 1-3) $\ln(TAF) = c_0 + c_1 ADJ + c_2 SQ(NOTE) + c_3 \ln(SIZE) + c_4 SQ(SUBS) + c_5 LOSS + c_6 MB + z$

변수	예측부호	회귀계수	t값	유의수준
ADJ	+	-0.064	-0.917	
SQ(NOTE)	+	0.133	1.838	*
ln(SIZE)	+	0.735	7.027	***
SQ(SUBS)	+	0.155	1.393	
LOSS	+	-0.011	-0.160	
MB	+	-0.037	-0.464	

수정 R^2	0.773
F값	33.329

*, **, *** : 양측검정시 각각 10%, 5%, 1%수준에서 유의

이와같이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K-IFRS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들이 IFRS의 적용에 따른 복잡성이 증대되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및 비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중 일부만 지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2010년 2월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의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외감법 제 3조 제 4항)'는 조항이 있다. 변경 전의 외감법에 따르면 동일한 감사인은 동일한 회사에 대해 6년 이상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외감법은 동일한 감사인일지라도 3년 마다 이사만 변경한다면 계속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외감법 개정이 K-IFRS 도입과 시기가 맞물린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K-IFRS 도입 관련 업무를 비감사서비스로 제공하는 대가로 감사보수를 올려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외국자본시장에 상장되거나 해외 영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하였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중소기업 등에서 다른 의도된 목적을 위해 도입한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업권의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기존 K-GAAP에서는 영업권을 상각하여야 했지만 K-IFRS에서는 영업권의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이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기존에는 영업권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매년 인식하던 회계처리에서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변경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자의적으로 이익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K-IFRS를 조기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자산에서 영업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K-IFRS를 조기에 도입하여 기존에 상각하던 영업권상각을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여 이익조정을 의도한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보수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감사시간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예견된다.

한편 감사보수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하락된 경우 감사보수 할인현상을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K-IFRS의 적용으로 조정수준 또는 복잡성이 종전보다 증대되어 감사업무의 투입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감사보수가 증가되지 않았다면 이는 감사보수 할인의 또 다른 유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직전연도에는 K-GAAP에 준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지만,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도입 첫해에 비교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K-GAAP에 의한 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해야 할 것을 염두해두고 미리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

제회계기준 도입 전년도부터 감사업무가 증대되어 막상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첫해에는 감사업무가 일시에 대폭 증대되어 감사보수가 증가되지 않은 기업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K-IFRS를 조기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58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및 비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감사보수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Schadewits and Vieru(2010)의 연구에서는 IFRS 변동수준과 총보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석식 등(2009)의 연구에서는 K-IFRS의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적어도 3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해외연구의 결과가 국내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FRS를 조기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보수, 감사시간, 비감사보수와 K-IFRS 적용에 따른 재무제표 항목의 복잡성과 변동수준과의 관련성에 대해 감사보수 결정모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K-IFRS의 복잡성을 주석공시사항 페이지수로 측정하여 K-IFRS에 준거한 재무제표작성과 공시의 복잡한 특성이 실제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및 총보수에 반영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사보수는 K-IFRS의 복잡성 정도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K-IFRS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감사인에게 보수를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K-IFRS와 관련된 업무 부담을 비감사보수에 반영하거나 감사계약 유지를 위해 즉각 감사보수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K-IFRS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2011년부터이므로, 지금까지 K-IFRS를 조기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과는 다를 것이므로 그 실제적인 영향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전체 상장기업 1,700여개 중에서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의 수가 너무 적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예상과 달리 대규모 기업에서 K-IFRS를 적용하기 보다는 중소규모 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에서 K-IFRS를 조기 적용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결과가 산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K-IFRS를 적용한 기업의 수가 증가하여 더 많은 표본기업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선민·한봉희·황인태, 국제회계기준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영국과 호주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저널 제18권 제2호, 2009.

강선민·한봉희·황인태, IFRS 적용이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연구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과 금융감독원, 2009.

곽수근·박종일, 유가증권상장, 코스닥등록 및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분석, 회계저널 제19권 제4호, 2010.

권수영·김문철, 감사보수의 결정요인과 감사보수체계 변화로 인한 효과분석, 회계학연구 제26권 제2호, 2001.

권수영·김문철·손성규·최관·한봉희,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유용성, 진영사, 2003.

노준화·배길수·전영순. 대리인비용이 큰 기업이 고품질의 감사를 선호하는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과 내국기업의 감사품질 비교, 회계학연구 제28권 제4호, 2003.

박종일·전규안·최종학,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제28권 제4호, 2003.

신용인·최관·조현우, 초도감사보수할인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제32권 제1호, 2007.

임석식·김경태·이영한, K-IFRS 적용의 실무적 문제점 및 대책, 회계저널 제18권 제4호, 2009.

주인기·최관, 외부감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피감사회사의 특성별 분석과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제7권 제1호, 1997.

최관·백원선,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1998.

최관·주인기, 외부감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피감사회사의 특별성 분석과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7권 제1호, 1998.

Adams, C. A., P. Weetman, E. A. E. Jones, and S. J. Gray. Reducing the berden of US GAAP reconciliations by foreign countries listed in the United States : the Key Question of Materiality, European Accounting Review 8, 1999.

Armstrong, C. Barth, M. Jagolizer, A. and Riedl, E. Market Reaction to the IFRS Adoption inEurope. http;//ssrn.com, 2007.

Beck, P. J., T. J. Frecka, and I. Solomon. A model of the Market for MAS and Audit Services : Knowledge Spilovers and Auditor-Auditee Bonding.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7, 1998.

Blanco, J. L. U. and B. G. Osma. The Comparability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US GAAP : An Empirical study of Form 20-F Reconcili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1, 2004.

Francis, J. R.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s :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 August, 1984.

Francis, J., and Strokes. Audit Price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Scale Economy : Further Evidence from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0(Autumn), 1986.

Francis, J. R. and Simon D. T. A Test of Audit Pricing in the Small-Client Segment of the U.S. Audit Market. The Accounting Review, 1987.

Hay, D. C., W. R. Knechel, and N. Wong. Audit Fees : A Meta-Analysis of the Effect of Supply and Demand Attribut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3, 2006.

Jermakowicz E. Effects of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 Belgium : The Evidence from BEL-20 Companies. Accounting in Europe 1, 2004.

Jermakowicz E., J. Prather-Kinsey, and I. Wulf.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come Reported by DAX-30 German Companies.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ing 18(3), 2007.

Levitt, A. Renewing the Covenant with Investors. Journal of Corporate Accounting and Finance. 11(6), 2000.

O'Keefe, T. B., D. A. Simunic, and M. T. Stein. The Production Production of Audit Services : Evidence from a Major Public Accounting Fir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 1994.

Palmrose. Z. Audit Fees and Auditor Size :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Autumn), 1986.

Palmrose, Z. The Effect of Nonaudit Services on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Spring), 1986.

Schadewitz, H., Vieru, M. Impact of IFRS Transition on Audit and Non-Audit Fees : Evidence from Small and Medium-Sized Listed Companies in Finland. Finish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2010.

Sharma, D. S. and J. Sidhu. Professionalism vs. Commercialism : the Association Between Non-Audit Sevices(NAS) and Audit Independance. Financial and Accounting 28(5&6), 2001.

Simunic D. A.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Spring), 1980.

Simunic D. A. Auditing, Consulting, and Auditor Indepen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2(2), 1984.

Solomon I. Discussion of 'The Jointness of Audit Fees and Demand for MAS : A Self-Selection Analysi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6(1), 1990.

Street, D. L., B. Nochols, and S. J. Gray. Assessing the Acceptability i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 the US : An Empirical Study of the Materiality of US GAAP Reconciliations by Non-US Companies complying with IASC Standard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35, 2000.

Whisenant, S., S. Sankaraguruwamy, and K. Raghunandan. Evidence on the Joint Determination of Audit and Non-Audit Fe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1, 2003.